

정부는 관계기관과 협력을 강화하여 급식실 환기설비 개선 및 온열질환 보호조치를 강화해 나가겠습니다.

1. 관련 기사

- 8.24.(월) 한겨레, “기름 튀는 조리실, 열 뿜는 엔진룸...실내 온열질환 산재 급증”

2. 설명 내용

- 정부는 학교 조리실, 공장 내 밀폐 장소 등 실내 작업장을 포함한 폭염 취약 사업장*을 중심으로 작업환경 개선 지원, 노동자 보호조치 이행 여부 집중 점검 등 온열질환 예방 대책을 수립하여 강도 높게 시행하고 있음('26.5.13.~)

* (폭염 취약 사업장) ▲건설업, ▲제조업(조선, 화학·고무제품, 기계기구금속광물제품제조업 등),
▲서비스업(시설관리업, 운수창고업, 도소매·음식업, 외국인고용 농림업, 지방정부 사업 등)

- 정부의 온열질환 예방을 위한 주요 조치사항은 다음과 같음

- ① ‘체감온도 33도 이상 폭염 작업 시 2시간마다 20분 이상 휴식 부여’ 등 실내·외 폭염 취약 사업장의 「폭염안전 5대 기본수칙」* 준수 안내 및 이행 여부 집중점검·감독('26.5.13.~9.31.)

* ①시원한 물, ②냉방장치, ③휴식(2시간마다 20분 이상), ④보냉장구 지급, ⑤119신고
→ 위반시 5년이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 벌금(「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」, '25.7.17. 시행)

- ② 학교 급식실 환기설비(후드·덕트) 개선 및 「폭염안전 5대 기본수칙」 준수 여부 불시점검 및 기술지원 강화

- ③ 이동식 에어컨 등 온열질환 예방장비 구매를 위한 재정지원('26년, 280억 원) 및 체감온도계·쿨키트·보냉조끼 등 예방물품 보급('26년, 15억 원), 고열을 줄이기 위한 환기장치 설비(후드·덕트 등) 개선 지원('26년, 128억 원)

□ 노동부는 교육부 및 시·도 교육청 등 관계기관과 긴밀히 협력하여 학교 급식실 환기설비 및 냉방설비 등 개선을 신속히 추진하고, 여름철 식단 조정 등 급식실 조리환경 개선 등 사업장 특성을 반영한 온열질환 예방 조치를 더욱 강화해 나갈 계획

※ 〈참고〉 연도별 작업장 내 온열질환 환자(온열질환 응급실 내원 통계, 질병청, '26.8.21. 기준)
'25년 1,538명 → '26년 1,186명(△352명, △22.9%)

담당 부서	산업보건보상정책관 직업건강증진팀	책임자	팀 장	유종호 (044-202-8890)
		담당자	사무관 주무관	박현건 (044-202-8891) 홍남교 (044-202-8895)
	산업보건정책과 산업보건정책과	책임자	과 장	신백우 (044-202-8890)
		담당자	사무관 주무관	김남균 (044-202-8871) 임성근 (044-202-8874)